

기관돋보기 | 해뜨는집

“아이들의 또 하나의 가정”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해뜨는집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돌봄·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동 생활가정이다.

2002년 설립 이후,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예체능 교육,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해뜨는집은 단순히 아동들의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또 하나의 가정”으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지난해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우수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아이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상당산성 나들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서 예체능·학습 프로그램 제공 심리·정서적 안정 치유...전인적 성장 지원

이때, 이를 위해 종사자들은 부모처럼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기본적인 생활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평생교육원 실용음악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피아노, 기타, 드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 교육을 통해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영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

소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악기 연주를 통해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음악을 매개로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우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해뜨는집은 남아가 함께 생활하던 시기, 지금처럼 여자아동 그룹홈으로 운영되기 전 남자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던 때가 있었다.

당시 아이들은 ‘그레이스’라는 팀명으로 제1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배 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해 멋진 활약을 펼쳤고,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대회의 추억을 담은 트로피는 지금도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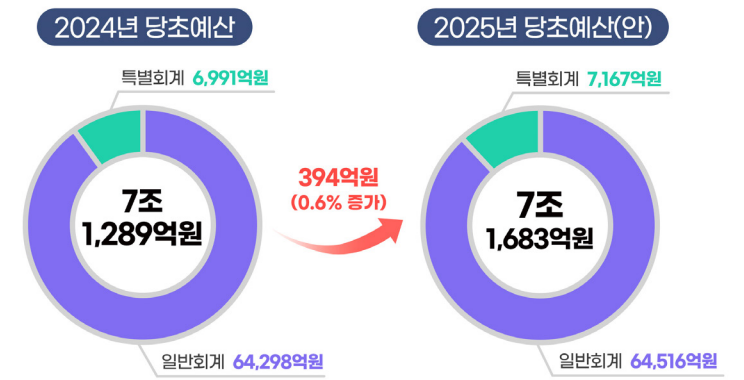
이는 아이들이 도전 정신을 키우고 협력과 책임감을 배우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그 자체로 해뜨는집의 가치를 잘 보여주게 됐다.

해뜨는집은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며, ‘내 자녀’처럼 돌보는 것을 운영의 철칙으로 삼아 자연스러운 가족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순복 원장은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동 그룹홈은 고아원·보육원을 넘어 선진형 아동복지시설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해뜨는집을 떠날 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기쁨이 있지만 유혹에 빠져 자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아이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뜨는집은 아동복지가 단순히 생존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뜨는집과 같은 그룹홈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따뜻한 비전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쓸 것이다.



2025년 예산규모.

충북도, 내년 예산안 7조1683억원 편성

사회적 약자 보호·경제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중점

충북도는 2025년도 예산안 7조 1683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1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조1289억원 보다 394억원(0.6%)이 증액된 규모이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발생으로 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아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도민 생활안정과 함께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등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충북도 예산편성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생태환경 보전 및 안전한 충북 구현, 일

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충북도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며,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녀 양육가정 식품 할인쿠폰 지원 확대

충북도, 배배쿠폰과 협약...이유식·간식 등 지원

충북도는 영유아식품 전문기업인 배배쿠폰과 지난 11일 협약을 맺고 자녀 양육가정에 이유식, 간식, 반찬 등을 최대 20% 할인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 정식품, 풀무원, 마이세프 등 3개 식품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녀 양육가정에 먹거리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참여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3개월만에 7700여명이 신청해 5만1391건의 할인쿠폰이 지원되는 등 자녀 양육가정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할인쿠폰 지원

사업은 자녀들을 위한 이유식, 간식, 반찬 등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참여하던 3개 업체에 더해 1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먹거리 품목 선택의 폭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민 충북도 정부부지사는 “자녀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실내 공연장에서 색소폰 공연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전문 멘토의 지식과 노하우 전달

3차년도, 무지개 복지마스터 멘토링 사업

멘토 자격조건, 멘티 선정기준(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 수시(예산소진시까지)

공통주제 기본과정

1. 프로그램 운영관리
2. 행정관리
3. 회계관리
4. 사례관리

-신규_의무교육 진행
※회계(2시간), 행정(2시간)
※자료집 지원

공통주제 심화과정

1. 서비스관리(성과관리)
2. 조직운영관리, 비품관리 등
3. 예·결산 및 추경, 후원금 관리 등
4. 자원연계관리

※공통_기본과정에 대한 심화과정

특별영역

1. 평가(대비) 준비 컨설팅
- 멘티 기관별 사전조사
- 평가지표 설명회, 기관 점검 등
2. 예비사회복지사 멘토링
- 사전 교육계획(안) 조사
- 현장적응력 향상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멘토 매칭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43-232-2213,2290)



충청북도사회복지사업회
CHUNGCHONGBUK-DO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청주시, 디지털 기술 취약계층 돌봄사업

스마트폰 기반 건강관리·응급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청주시는 NHN의 장년층 돌봄 전문 자회사인 와플렛과 협력해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임시청사에서 와플렛과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법석 청주시장과 황선영 와플렛 대표이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3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독거 어르신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의 행정력과 와플렛의 기술력을 접목해 새로운 돌봄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와플렛의 노인 돌봄 플랫폼인 '와플렛'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청주가경 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중),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우탁) 등 3개 기관을 통

해 총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청주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시니어케어는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 플랫폼은 복약 알림, 심혈관 체크, 기억력

측 서비스 등 건강관리 기능과 게임, 라디오, 운세, S.O.S 응급 알림 등 여가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 체크와 치매 선별을 위한 '기억콕콕 서비스'는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조기에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어르신 돌봄에 접목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2025년 4월까지 5개월 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점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종료 후에는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해 고령화 사회에 맞춘 복지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NHN의 장년층 돌봄 전문 자회사인 와플렛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 고독사 위험군 980명 '수입 없이 생활'

1인 가구 5474명 대상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단양군은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초석을 다진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관내 1인 가구 5474명

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협의체의 인적자원망을 활용해 유선 및 방문으로 시행됐으며, 설문지를 활용해 응답자의 기본 정보와 가구별 욕구조사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단양군 응답자

2142명 중 60대 이상이 57.6%를 차지해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입이 없는 응답자가 절반가량인 980명, 외출 빈도와 가족·이웃과의 연락이 낮은 가구도 상당수 확인됐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묻는 응답에는 71%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63%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고독사 위험군을 직접 확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 지원해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총 24억7000만원 투입

충주시는 저소득층 가구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연탄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기준 5688가구를 대상으로 21억8100만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하절기(7~10월)와 동절기(10~내년 5월)동안 바우처를 통해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해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전

기, 도시가스)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액은 1인 세대 31만200원, 2인 세대 42만2500원, 3인 세대 54만7700원, 4인 이상 세대 71만63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가구는 내년 5월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연탄 쿠폰 지원

사업으로 올해 10월 기준 530가구에 2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절기동안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54만6000원씩 연탄쿠폰(카드)이

지급된다.

추가 신청은 11월 중순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물가 상승과 유가 변동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음성군, 행복페이 기부서비스 구축 협약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3개 기관과 협약

음성군은 음성행복페이 속에 있는 기부서비스 '음성사랑나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병옥 군수, 이진용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신승은 코나아이 상무가 참석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음성사랑나눔'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음성행복페이 기부서비스' 운영을 위해 군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홍보, 지원 대상 발굴 업무를,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금 배분 지원 및 전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관리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코나아이는 플랫폼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부서비스'는 음성행복페이 모바일 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선택한 후 충전금(캐시백 제외)으로 최소 1000원 이상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기부금은 모금 완료 후 협의체를 통해 기부대상자에게 전달된다.



음성군은 '음성사랑나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개 기관과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범위 확대

최대 50만원 대출 이자 지원 등

진천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비용 및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제1, 2급유권 신용대출에만 해당하던 지원범위를 주택자금대출과 한도대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는 대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 가정이 대상이다.

이 사업 역시 제1, 2급유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모두 지원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 비용·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등의 지원범위 확대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부 지원 외 자체 예산 투입

제천시가 정부 지원 외에 난임 부부의 시술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더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본인 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시술 시 최대 25회, 30만원에서 110만원의 시술비용을 난임 부부에 지원한다.

제천시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

터는 지난 10월 제정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공 수정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동결 배아(체외수정)는 최대 100만원까지, 신선배아(체외수정)는 최대 200만원까지 더 지원한다.

시는 내년 이 사업을 위해 총 300건의 난임 시술(체내·체외 수정 포함)을 지원할 수 있는 예

산으로 9510만원을 세외 높았고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제천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4세까지였던 난임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이 이달부터 폐지돼 모든 연령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게 됐다"면서 "시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잼,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즉 동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들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괴산군, 녹색자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노인복지관 내 휴식 공간...1억1300만원 확보

괴산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괴산군노인복지관 산림복지 나눔숲이 최종 선정돼 1억13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나눔숲 조성 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내에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랑원두' 커피 동아리와의 연계로, 이용객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괴산군은 사업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노인복지관 내 기존 보도블럭 광장을 철거하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한 후 꽃과 나무를 심어 기존 화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괴산군 노인복지관에 산림복지 나눔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어르신들을 위한 산림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이 미래가 되는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산림 복지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괴산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계획 수립

돌봄지원 통합·연계 제공 위해 서비스 조정 등

괴산군은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통합지원회의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등을 통해 발굴된 시범사업 대상자 7명에 대한 대상자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가족행복과, 괴산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대상자 심화 평가를 실시한 읍·면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등 의료·돌봄 담당자 15명이 참석해 대상자의 조사 결과와 서비스 내용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통합지원회의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선정, 조정, 변경 등을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장병란 가족행복과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괴산군은 지난 6일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괴산군은 보건복지부와 충북도가 각각 주관한 노인돌봄 관련 공모사업에 연이어

옥천군,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건강한 아동 생활환경 조성... 시설 투명성 강화

옥천군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목표로 시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내 아동양육시설 1개소,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전반, 종사자 관리 및 근무 환경,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아동복지 시설 거주 아동 인권 보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개선 권고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위법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진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제고한다"며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동군, 컴퓨터·스마트폰 무료강좌 운영

엑셀부터 스마트폰 활용까지 다양한 강좌 제공

영동군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진행 예정인 무료 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할 강좌는 엑셀 기초(오전 10시부터 12시), 인포그래픽·파워포인트(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스마트폰 활용(오후 4시부터 6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오후 7시부터 9시) 4과목이다.

강좌별 모집인원은 15명이며, 희망자는 영동군 누리집(www.yd21.go.kr)이나 전화(☎043-740-3185)로 신청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1대1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은군, 사이버 군민증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주목



정이품보은군민제도 누리집 메인화면 가관.

생활인구 유입 확대 위한 조례제정 및 가맹점 모집

보은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 군민증인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는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보은에 연구가 있거나 보은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이 정이품보은군민으로 가입하게 되면 정이품군민증을 발급 받게 된다.

정이품보은군민으로 가입하여 정이품보은군민증을 소지하게 되면 보은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체험시설과 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 정이품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7월 온라인 누리집 제작 용역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

2025년 본격적인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앞서 정이품가맹점 모집을 위해 온라인 공고와 지역 내 주요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보은읍 및 속리산면 중심으로 보은군 소재 업체들을 일일이 현장 방문해 정이품가맹점에 대해 홍보하고 가입 신청을 유도하여 다양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말까지 가맹점 모집과 누리집 제작 등 2025년 1월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완료됐고 누리집 제작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을 통해 내외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에 대한 충분한 대안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군, 아동복지와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

초고령사회 대응·아동 돌봄 및 청년지원 강화

증평군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증평형 아동복지와 청년지원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주민등록인구가 약 10만6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2023년 기준)을 기록하며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증평군은 아동과 청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구조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 인구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1.07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증평군은 아동 돌봄과 청년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대안으로 삼아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돌봄나눔터 조성, 행복돌봄센터 건립 등 특화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월세 지원, 증명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발굴 중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국



이재영 증평군수(오른쪽)는 지난달 30일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왼쪽)을 만나 증평형 복지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장을 만나 증평형 복지 시책의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청년 분야 정책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군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증평군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총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총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총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총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여건 실태조사 발표

월 평균 보수액 315만원, 지난 3년간 5.5% 인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건을 분석하고 4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원으로 지난 20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만4000원(78.4%), 수당 등은 68만3000원(21.6%)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조사됐다. 준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유형의 시설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당의 지급률은 각각 67.0%, 50.7%, 46.4%로 조사됐다. 또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이전 조사 대비해 소폭 감소해 근

무부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과 이직의사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여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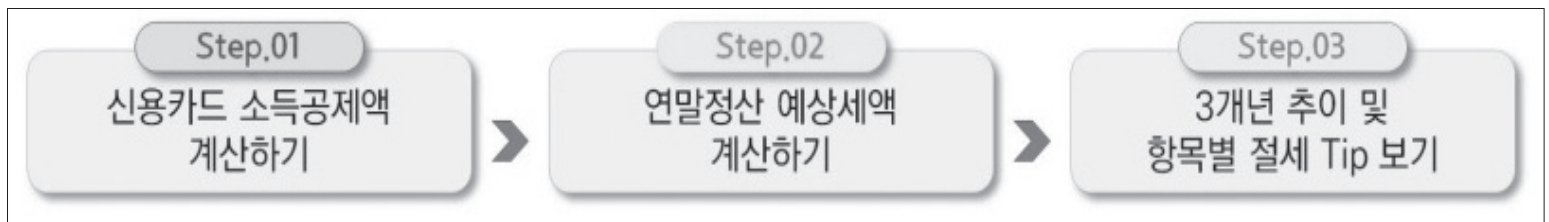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활동지원사 연제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최종중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서비스로, 원칙적으로 비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가족급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가족급여를 통해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았던 장애인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30점 이하인 최종중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가족이 활동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세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올해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가족급여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예상세액 미리 계산...인적공제 · 신용카드 공제 증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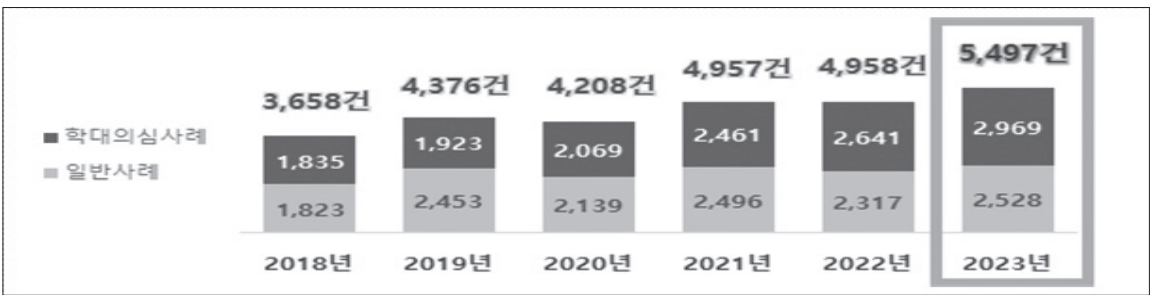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

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 의료비 공제의 증감

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 · 감면에 대해 실시간으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 · 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 ·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 · 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 의심 사례 현황.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5497건
전년대비 10.9% 증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 · 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20개소(충북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주요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30.8%), 정서적 학대(24.8%), 경제적 착취(2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사례가 7.9%, 피해자의 82.1%가 지적장애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의 18.5%(263건)로 나타났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를 차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72건의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상담, 거주지원, 사법지원 등 총 1만7127회의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관련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 부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첫째,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미혼부가 출생확인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보

했다. 둘째,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실태를 조사해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양육,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정방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넷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복

지시설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행되며, 출생확인 관련 법률지원과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및 항목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로당 냉 · 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주 5일 식사 제공 · 올해 107억원 예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로당의 냉 · 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복지부는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혜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000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만4000개로

지난 4월(2만3000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로당 냉 · 난방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 허용은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 시행되었으며,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원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광역푸드뱅크, 사업장 평가 ‘A’

전국 17곳 중 2위... 사회복지시설 100억 지원
올여름 수해민 위한 푸드팩 신속 전달 등 성과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가 운영하는 충북광역푸드뱅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평가에서 17개 광역푸드뱅크 중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기부식품 등제공사업장 약 440개소를 대

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기부식품의 안전관리, 사업장 운영의 투명성, 취약계층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충북도는 기부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지역 내 긴급 생계 위기가구,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만5022명, 사회복지시설 288개소에 약 100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동군과 옥천군 수해민들을 위해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담긴 이머전시 푸드팩(600개)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를 강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한편 충북도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22개소,

푸드마켓 6개소로 운영하며, 전방위적인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응모 회장은 “이번 성과는 충북도의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홍덕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샐러드 카페 ‘카페푸룻’의 근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홍덕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새 모델 ‘눈길’

샐러드 카페 ‘카페 푸룻’ 개소
일자리·사회 참여 기회 제공

청주홍덕시니어클럽(관장 정미정)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친환경 샐러드 카페 ‘카페푸룻’이 지난 15일 청주의료원 동관에 문을 열었다.

이번 카페 오픈은 충청북도의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 투자 지원과 청주의료원의 무상 임대 지원으로 가능했으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카페푸룻’은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컨셉의 카페로,

지역 주민과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페푸룻에서 일하게 되는 근무자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푸룻이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활기찬 소통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36회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나우리봉사단은 정몽준(왼쪽 네번째)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나우리봉사단, 복지 증진·나눔문화 확산 ‘앞장’

아산상 시상식서 자원봉사상
소외계층 위한 재능기부 지속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 소속 대표 봉사단체인 나우리봉사단(회장 심재훈)이 지난 25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에서 주관하는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해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시상식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진행됐다.

나우리봉사단은 협의회 대표 봉사단으로 지난 25년 간 활발한 나눔문화 활동 참여로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심재훈 회장은 “이 영광은 지난 25년 간 함께해준 단원들의 헌신

과 협의회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는 봉사단체로 더욱 거듭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유응모 회장은 “수상한 나우리봉사단 회장님을 비롯한 단원분들께 진심을 담아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나우리봉사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

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우리봉사단은 총 9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자원봉사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것을 비롯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이·미용 서비스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한 뒤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사랑 넣고 담갔어요”

저소득 장애인가정 김장 전달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구)은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옥천지구협의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우리 고유의 풍습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만드는 공동체 문화를 재현한 자리였다.

김장 나눔은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전통적 미덕을 계승한 행사로, 단순한 식품 나눔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복지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장애인 10명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대한적십자사 옥천지구협의회 회원 20여명과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1000kg 분량의 김장이 이뤄졌으며, 1가정당 10kg의 김장 김치를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100가정에게 전달된다.

또한, 이용자와 재가장애인 일부가 함께 참여해 대한적십자 자원봉사자가 김장김치 담그는 과정을 시연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

인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황명구 관장은 “김장을 도와주신 지역 내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 덕분에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김장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단양장애인복지관, ‘시와 당신의 이야기’ 시집 발간

창작동아리 어르신 6명
‘세월 담은 시’ 6편 실어

단양장애인복지관(관장 김경섭)은 창작동아리 장애어르신 6명이 최근 시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발간된 시집은 ‘시와 당신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90페이지에 세월이 담긴 짧고 긴 시, 60여 편이 소중하게 담겼다.

시집을 펴낸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는 75세로 복지관에서 진행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해 얻어낸 귀한 결실이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 인사를 초청해 모두 36차례 수업을 거쳐 시 창작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지난 8월 복지관은 읍내리읍에서 어르신 작가 6명의 가족과 이웃 등의 축하 속에 시낭송과 시집발간 사인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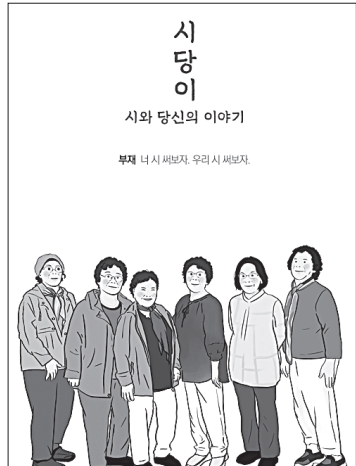
이번 문화예술 활동은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2024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모사

업’에 선정돼 진행 됐다.

복지관은 이번 활동과정에서 장애인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를 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 속에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섭 관장은 “장애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추억을 시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큰 성취감을 갖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단양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세상



발간된 시집 ‘시와 당신의 이야기’ 표지.

과 소통하고 우정과 화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건강백세 운동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건강백세 운동교실’ 성료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와 함께한 ‘건강백세 운동교실’이 지난달 18일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40회차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25

명이 참여해 노년기의 신체 건강과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 체지방량 평균 1.6kg 감소, 골격근량 평균 0.6kg 증가라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척추질환으로 걱정했지만 꾸준히 운동한 덕에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 황지연 관장은 “내년에도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성과는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5대 분야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주〉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도 높였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와 소아 진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정책 수가 신설, 입원료 인상,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자되었고 2028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2조원 규모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하여 국민부담을 낮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필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모든 질병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안전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인력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아, 심뇌혈관,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중증·응급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입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와 특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를 도입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 이송 및 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는 작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 약 115만명이 이용했다. 향후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첫째,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공론화 논의 등을 반영하여 21년 만에 단일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수 개혁,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

필수의료 강화·지역의료 체계 구축 및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강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및 약자복지 향상

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층적인 연금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를 개선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원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890조원에서 약 250조원(28%)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지만, 우수인력 유치와 대체투자 확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난해 수익률은 13.59%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양호한 수익률(8월 기준 8.76%)이 예상되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첫 해 4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수는 303만명에서 287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0세 부모 급여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부모 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세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 제공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도 인상했다.

최근 증가하는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과 기간도 확대했다.

아울러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최근 발표된 7·8월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도 42.4%에서 50.7%로 8.3%p 상승하며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 부부당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리고,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및 연령 기준도 폐지됐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과 함께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기존 사무국도 확대·개편하여 1국 5과에서 1처 3국 11과로 규모를 늘렸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발의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왔다.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2%로 상향하여 복지 문턱을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높였다. 그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2년 152만명에서 2024년 168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매년 2000개씩 늘리고,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확대하며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비율(29.5%→37.2%)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76.3%→88.5%) 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노후 안정성을 위해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를 103만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10만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임기 내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아동의 생명 보호와 위기임상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여 10월 기준 7만330건의 출생정보가通报了. 이에, 위기임상부 567명을 지원하여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디딤씨앗통장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된다.

둘째,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지원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4개 시·도)을 시작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보호종로 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설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내년부터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긴급 복지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정신건강 중·고위험군(8만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복지 위기 알람 앱 시행, AI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 도입 등 ICT와 AI를 활용한 지원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1. [의료개혁] 필수·지역의료 강화

- 중증·응급,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1조 2000억원 투자
- 국가재정 10조원 +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집중 투자

< 필수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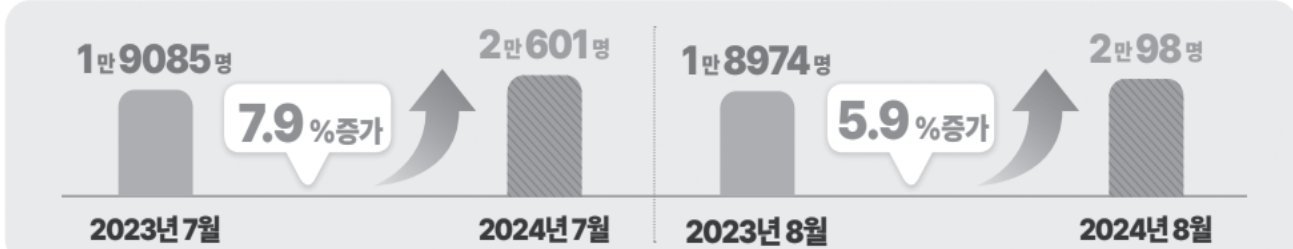


1조 2000억원 투자(건강보험)
(2024년)

↓
국가재정 10조원 +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투자
(2028년까지)

3. [저출생 대응] 추세 반전 위해 총력 대응

- 올해 7·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 반등(전년 동월 대비)
-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하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에 총력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연령기준 폐지,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 → 출산당 25회), 45세 이상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필수 가임력 검사 등 난임 지원 확대

2. [연금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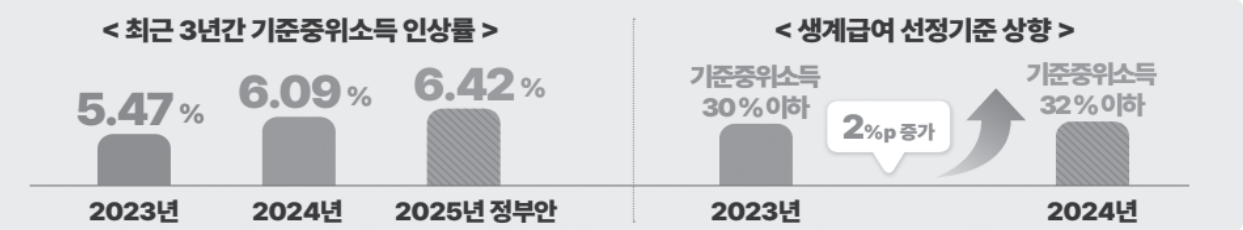
- 21년 만에 정부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2024년 9월)

- ▶ [지속가능성 확보]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2%, 기금수익률 4.5% → 5.5%+α,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 ▶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지급보장 명문화
-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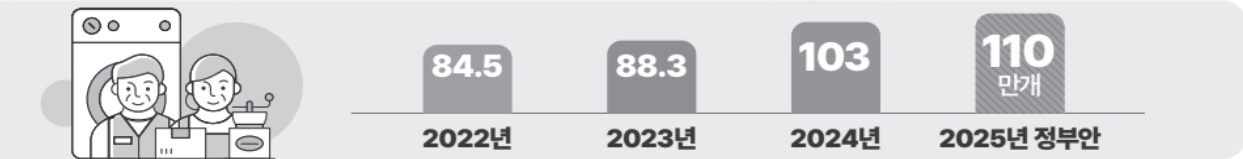


4. [약자복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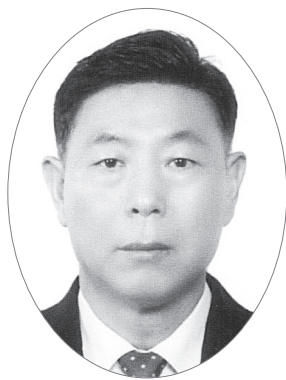
-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복지광장



김 선
성덕원장

나는 잡자리에 일찍 들었으나 쉽게 잡
들지 못했다. 내일은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탐나는 힐링'을 떠나는 날이다.
충북현양복지재단에 입사해 노숙인복
지에 종사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정년이 9개월도 남지 않았
다는게 실감 나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참 바쁘게도 살아왔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게 살아 온 터
라 힐링이나 여행 같은 건 나에게겐 사
치였다.
바쁜 업무 중에도 나 자신의 성장을 위
해 학업에 열중했고, 단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살아왔다. 심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사실, 나는 '탐나는 힐링'에 관심이 없

었다. 시설장이라는 직책도 있거니와 개
인적으로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는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직원들을 대신 보내려고 했
으나 퇴직을 앞둔 나를 참여시키려 권유
하며, 결국 강권에 못 이겨 마지막 날 신
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탐나는 힐링' 프로그램은 나에게 특별하
고 깊은 감회를 주는 경험이 되었다.
10월 16일 날이 밝았다. 나는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청주공항으로 향
했다. 우리 일행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직원분들의 진절한 안내를 받으며 간단
한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공항까지 나오
신 유응모 회장님의 환송을 받으며 제주
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의 풍경이 장
관을 이뤘다. 구름 위로 비행기가 솟아
오르고, 아래에는 양털 같은 하얀 구름
이 내 마음처럼 풍실풍실 피어올라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앞 좌석 일행
도 창밖을 향해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
다. 나 만큼이나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
이 분명해 보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
가. 분주한 업무 일상을 내려놓고 힐링
여행을 떠나고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
는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쩌면 이러
게 다정할 수 있을까, 같은 업무에 종사

하는 이십전십이었을까? 고향 친구 같
기도 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나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우리는 함덕 해수욕장에 도착해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다. 모두
“아아! 좋다!”며 즐거워했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여
기 저기서 “잡았다!”며 환호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고, 나는 한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기
뻐했다. 이어서 역새들이 춤추는 가을
역새길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고, 이러
게 첫째 날을 보냈다.
둘째 날, 우리는 섬지코지를 산책하고
빛의 벵커, 에코랜드를 관람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섬지코지의 바다는 너무
아름다워 '이곳이 제주 바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검은 화산석으로 이루어진 해안선과
푸른 바다, 출렁이는 파도, 부서지는 하
얀 포말, 성산일출봉까지 펼쳐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훑날리는 머
리카락과 망가진 헤어스타일에도 아무
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그 모습에서 진정한 힐
링을 느꼈다.
빛의 벵커도 장관이었다. 나의 예술
감수성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고나 할까, 에코랜드 관람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기적 소리와 함께 달리는 숲속
열차, 마치 정글 속을 달리는 듯하다. 또,

우리는 캔들 공방 체험을 하며 유치원생
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30여년 전
아이와 함께했던 유치원 시절의 추억도
떠올랐다. 이 체험은 또 다른 소중한 추
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셋째 날, 벌써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아쿠아플라넷 제주 관람과 본초족욕 체
험이 있는 날이다. 바다를 실내로 옮겨
놓은 듯한 장관, 형형색색 다양한 물고
기들이 펼쳐져 감탄을 자아냈다.
창조주의 위대함이 눈앞에서 생생하
게 느껴졌고, 이어진 오션아레나 공연은
스릴 넘치는 묘기와 바다사자와 조련사
의 완벽한 호흡으로 관객들의 환호를 받
았다. “와!” 하는 탄성 외에는 더 이상 필
요한 것이 없었다.
본초족욕 체험은 처음엔 기대하지 않
았지만, 한약 냄새가 가득한 족욕탕에서
발을 담그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기분
이었다. 세심하게 준비된 마지막 일정에
감사했다. 족욕을 마친 후, 제주공항으
로 이동해 해산 인사를 나누고 청주행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 연신 죄송해하던
직원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해 마음이 짠
하다. 우리는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협의회 관계자들과 사회
복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멋지고 감사한 힐링의 시간
이었으며,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힘을
내어 더 열심히 일하리라 마음을 다져
본다.

복지칼럼

다문화 신평속도



김 규 래
충주그린지역아동센터장

필자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센터
는 충주 5일장이 열리는 장터 입구
에 위치해 17년째 운영 중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입
지적 특성 덕에 다문화 이주여성들
이 정착하기 용이하며, 직장을 구
하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에도
유리하다.
상가나 식당의 점원으로 일하거
나, 자국의 음식과 식료품을 판매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용직 용역 승합차를 타기 위해
모인 이들의 활기찬 언어와 목소리
가 벽과 창을 넘어 새벽을 빠르게
깨우고 한다.
몇 해 전부터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들은 전체 정원의 60%
를 넘어섰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거나, 재
혼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
로 불러들여 교육시키는 중도입국
아동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독특
한 풍경 중 하나는 방학이면 대부
분 엄마의 모국을 방문하는 것이
다. 센터에서는 항공 티켓 사본을
내밀며 한두 달 동안 엄마 나라에
서 지내다 돌아오는 친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공백기 동안, 이주 여성들은
기술적, 소규모 가게 운영, 또는 일
용직 등 새벽부터 바쁜 일차리에
나서게 되며, 자녀들은 본국의 가
족이나 친인척에게 맡겨진다. 이는
방학 동안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아이들이 방학 동안 홀로 남겨나
휴대폰 게임에 빠져 방위되는 것을
막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데 대한 심리적 보상을 찾
으려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선택이라기보
다 부모가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려
는 자선책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엄마의 모국 방문을
유학이라는 거창한 말로 큰돈 들
이지 않고 아이가 쉽게 언어를 배
울 수 있다는 장점도 내미는 카드
이다. 글로벌하게 크도록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방학 끝 무렵이면 이 친구들은
하나둘씩 말린 망고 과일 한 봉지
를 선물로 쓱 내밀며 센터로 돌아
온다. 잘생긴 얼굴이 더 멋져지게
다듬어지고 키도 커졌다. 입에서는
방금 미국에서 돌아온 아이처럼 능
숙한 베트남어를 몽글몽글 쏟아낸
다.
“센터장님 나 베트남어도 할 줄
안다요! 한국말도 잘하고 이제 영
어만 배우면 나는 3개 나라말을 한
다요”
“와우, 대단한데! 외할머니 집에
서 행복했던 추억 많았어?”
“네! 재미있었어요”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억양으로
그간의 일들을 줄줄이 쏟아낸다.
베트남 사춘들과 매일 개울에서 수
영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며
거무스름하게 탄 얼굴에 흰 이를
곱게 드러내며 웃는다.
아이의 신나는 목소리는 쾅한 햇
볕처럼 반짝였다. 평소 이렇게 수
다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아이는 부
모님 삶 속 그 어떤 슬픔도 현실적
인 어려움도 찾아볼 수 없다.
소란스러움의 극치는 이 친구들
이 각각 알거나 배워오고 알아들
는 베트남어를 통용하며 대화를 주
고받고 깔깔대는 모습은 마치 나비
떼가 오방색을 펼치며 나폴레옹의
찬란함이 차오른다.
소설가 김훈은 “아이들의 까닭
없는 웃음, 나는 그걸 희망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센터에 모여 까
르르 소란스레 방학 동안의 이야기
를 펼치며 저마다 아이들은 희망을
타는 날갯짓으로 분주하다.

영양분이 충분한 꽃가루를 묻히
고 잘 먹고 잘 놀고 눈치 보지 않고
게임도 싹싹 하고 온 아동들은 이
제 한동안은 학교 수업 중 엄마 나
라말과 우리 국어 문장 사이의 간
극 좁히기를 배우느라 또 애를 태
울 터이다.
각 지방 아동들이 학습 진도 차
이의 장벽이 있듯이 다문화 아동들
은 방학 중 학습 부재라는 경험을
치르고 나면 또다시 엄마의 열정
과는 달리하기 싫은 공부벌레로
앉아 졸며 장난치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인구절벽의 나라에서 자랑스러
운 대한의 아이로 우리가 되는 과
정을 겪는 다문화 아동들의 손을
잡고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아동센
터 아동들을 만나고 이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며 칭찬해 주
며 나아가고 있다.
교육이 삶을 바꾼다. 집단지성은
힘이 강하다. 취학, 경연, 협업을 통
해 미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제 몫을 다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저들과 유년의
걸음을 함께 걸으며 격려와 사랑으
로 나아가ندا.

현장의 목소리



정 상 혁
충주내덕노인복지관 팀장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
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서비스의 목적과 대
상, 신청 절차가 상이하여 노인들이 직접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노노케어는 2005년 '노노 간병사업'이
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건강한 노
인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형태
의 서비스이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을 대
상으로 안부 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
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방문요양서비스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요양보
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세면, 식사, 이동 등 일상생
활에서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청소, 세
탁, 식사준비 등 가사 활동도 돕는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유
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
터 시행되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
되어 노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
는 지원을 제공한다.
일반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화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목적으

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별도의 시스템을 통
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
한 실정이다.
노노케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며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에서 주관하며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이처럼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
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거나, 중복 지원 등
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간 연계의 필요성은 매우 명확
하다. 노인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
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
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
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합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
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보호자가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행복보

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가족과 단절되어있는 노인의
경우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협력 강화와 정보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
하다. 현실적으로 민간에서는 이 문제를
한눈에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민간
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노케어 참여 어르신들의 경우 대상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하고,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속
적인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대상자의 인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연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이다. 이 미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하며, 이를 위
해 우리 사회 모두가 연대하여 노인 돌봄
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민·관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때, 모든 노인이 존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돌봄 체계의 방향

똑똑똑! 법률상담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3개월 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며 변제를 독촉하자 곧 주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 중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

A.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채권자로 하여금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상의 재판과 달리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에 반하여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송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주 이내의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당자의 경우 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소액소송도 가능하나,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인사동정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제2대 이장희 원장 취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제2대 원장으로 강동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인 이장희 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장희 원장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충북사회복지협회 이사, 청주복지재단 이사, 글로벌투게더2010의 이사장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과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다. 지난 22일 충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25일 취임과 함께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장희 원장은 “그 동안의 복지 및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학식과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기관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진정성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장희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1월 23일까지이다.

지역사회봉사단

재능나눔연합봉사단, 쌀 나눔 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모) 소속 재능나눔연합봉사단(단장 김영준)은 지난 10일 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이날 청주시, 괴산군

청천면 등 충북 일대의 소외된 이웃 30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쌀(10kg, 2포)을 전달하였고, 이웃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김영준 단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지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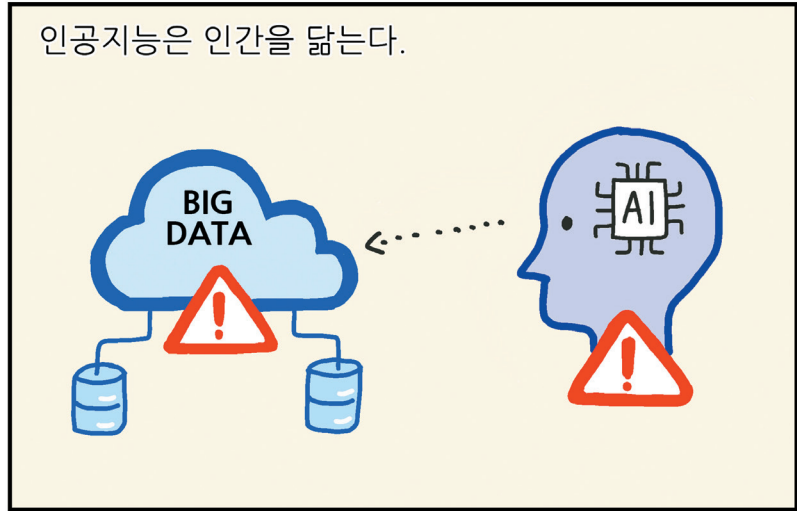
재능나눔연합봉사단은 2019년 12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최근 6년 동안 쌀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환경 개선, 농촌일손돕기와 같은 현장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북/지/만/평

학습

이창신 www.bokmani.com



인공지능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신중하게 QR코드 체크!

CHECK 1

아무 QR코드나 찍지 않기!

덧붙여 가져 QR코드인지 살펴보고, 인터넷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

CHECK 2

QR코드로 연결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요!

CHECK 3

QR코드 접속 시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기!

스마트폰은 좀비폰이 되고,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거예요!

· 쿼싱(QR코드 피싱) 확인방법 ·

TALK카키오픈 열기

'보호나라' 친구추가

'스미싱' 누르고

www 쿼싱 URL 입력

체크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4-0840

▶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관리센터: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8-3786

▶ **경로식당 배식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88-3060

▶ **서류정리**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834-3411

▶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6-0111

▶ **경로식당 조리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88-1428

▶ **산책 동행**
관리센터: 괴산군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834-341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